

가을의 문턱, 북유럽 감성 충전하세요

9~13일 광주극장 스웨덴영화제 '차터' '스킴 버드' 등 10편 상영 지속가능한 가치 주제 연대 꿈꿔 무료 관람...매표소서 티켓 배부

지난 2012년 처음 시작된 스웨덴영화제가 올해로 10회를 맞았다. 지금까지 '맥박', '연대와 우정-마음을 열다', '새로운 인생' 등 다양한 주제로 관객과 만나온 스웨덴영화제는 스웨덴 문화와 스웨덴 사회가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한국의 관객들과 나누었다.

제10회 스웨덴영화제가 9일부터 13일까지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주한스웨덴대사관과 스웨덴대외홍보처, 스웨덴영화진흥원이 함께 주관하는 이번 영화제는 부산 영화의전당, 인천 평화공간주안, CGV 대구 한일 등에서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스웨덴영화제에서는 '삶의 지속가능한 가치'를 주제로 한 총 10편의 영화를 소개한다. 지난 1년 동안 스웨덴에서 주목받았던 다섯 편의 작품과 함께 제3회부터 제7회까지 스웨덴영화제 개막작 다섯 편을 선정했다. 10편의 작품들은 삶이란 지속가능한 가치를 위한 아름다운 투쟁이며, 국경과 인종과 성별을 초월하는 공감과 연대만이 우리를 한 걸음 더 전진하게 한다는 의미를 전한다.

스웨덴영화제 개막작은 2021년 아카데미상식에 출품된 영화 '차터' (2020)다. 양육권 싸움에서 자신이 질 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남편의 동의 없이 두 아이를 데리고 휴가를 떠나 아이들의 마음을 돌리려 하는 엄마 알리세의 노력을 그린 작품이다. 깨진 가족애를 통합하려는 엄마의 노력을 통해 가족의 의미와 새로운 삶에 대한 모색을 담고 있다.

'나의 아빠 마리안' (2020)은 늦은 나이에 성정



제10회 스웨덴영화제가 9일부터 13일까지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사진은 '문 오브 마이 오운' 스틸컷.

체를 깨달은 아빠의 인생에 다정하게 손길을 내미는 딸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는 아빠 마리안을 보여준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주인공과 아픔을 받아들이는 가족의 현실을 유쾌한 연출로 풀어낸 '런 우에 런' (2020)은 주인공으로 출연한 배우 우에 브란델리우스의 자전적인 영화다. 상상도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는 인생에 관한 작품으로 늦기 전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야기한다.

'갯위크' (2020)는 장애인들이 불가능할 것만 같던 패션모델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담담하게 보여주며, 폭력이 일상인 한 빈민촌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스코틀랜드의 미혼모 이야기를 담은 '스킴 버드' (2019)도 상영된다.

제4·5·6회 스웨덴영화제 개막작이었던 '스톡홀름 스토리' (2013)는 11월의 아름다운 스톡홀름을 배경으로 흘러져 있던 다섯 인물의 사연을 하나로 엮은 멀티 플롯 영화이며, '언더독' (2015)은 일자

리를 구하기 위해 스웨덴에서 노르웨이로 이주한 23살 디노가 베이비시터로 일하게 되면서 겪는 이야기를 다룬다.

이밖에 길거리에서 마약을 팔며 살아가는 미나가 고양이 한마리와 캠퍼스에서 살게되면서 일어나는 스토리를 담은 '미나의 선택' (2015), 영화감독 임마르 베리만 (1918-2007)이 발트해 포피섬에 꾸린 자신만의 세상을 보여주는 '베리만 아일랜드' (2006), 스웨덴의 전설적인 싱어송라이터 테드 예르데스타드의 음악과 삶을 담은 '문 오브 마이 오운' (2018) 등도 다시 만날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면으로 열리는 관객과의 대화와 행사는 없지만 '차터', '나의 아빠 마리안', '런 우에 런' 등 세 편의 영화는 감독, 배우의 사전 인터뷰 영상이 영화 속에 포함돼 관객을 만난다.

상영작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9일 오전 10시30분부터 광주극장 매표실에서 티켓을 받을 수 있다. 문의 062-224-5858.

/전문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구동기와 함께하는 '광광술래' '역사 모꼬지'

광주공원 광합성프로젝트 1주년 9일 광주교서 다채로운 행사

광주공원 거북이 '구동기와 함께 하는 광주공원 광합성프로젝트'가 출범 1년을 맞아 오는 9일 오후 3시 30분 광주공원 광주교서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

광주공원은 광주 최초 도심공원으로 광주향교, 성거사지오층석탑(보물 제109호), 광주시민회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플랫폼 등 다양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다. 특히 광주시민회관은 70~80년대 시민들의 추억의 공간이자 최근 청년창업거점으로 인식돼 핫플로 떠올랐다.

'광주공원 광합성 프로젝트'는 지난해 9월 14개 기관 협약을 통해 시작됐다. 활동가들의 애정은 '구구 구동기'로 성거사 거북이 전설에서 유래된 옛 지명인 거북 구(龜)를 쓰는 '구동'을 기억하고

협약한 날을 기억하지는 의미에서 이름을 붙여졌다. 광주향교·성거사·4·19문화원·광주시민회관(도시문화집단CS)·입방울국악진흥회·사직문화보존시민모임·광주공원 노인복지관 등 14개 기관이 참여한다.

기념식은 광주공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연계해 예술행진, 국악버스킹 등으로 진행된다. 광주공원 매월 상설공연인 국악버스킹 '굿판타지아' 등의 공연을 비롯해 구구 구동기들의 한마음을 다짐하는 '광광(光光)술래', 역사문화자산이 가득한 광주공원을 역사탐방하는 '광주공원 역사 모꼬지'도 진행된다. 또한 광주시민들 염원을 담은 메세지를 매달은 이승연 작가의 에드빌런 퍼포먼스 'Jump into the Sky' (9-14일)도 만나볼 수 있다. 행사는 49명까지 참석 가능하며 사전 예약 (062-670-7452) 해야 한다. 유튜브 채널 '한사랑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4·19풍물단의 '광주공원 광합성프로젝트' 활동 장면.

광주문화재단 '예술날개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광주문화재단은 지역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활동지원 프로그램 '예술날개 프로젝트' 참여자를 10월까지 모집한다.

이번에는 공연(오케스트라), 공예 분야가 진행되고 문학 분야는 9월 중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공연 분야는 바이올린 9명, 첼로 3명 등 총 12명을 모집한다. 참여자에게는 악기를 무료 대여해주며 프로그램은 악기별 파트 수업과 합주 연습을 주로 진행한다. 10주간 과정을 모두 마친 후 2차례의 결과발표회가 예정돼 있다. 18일~11월 27

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진행한다.

공예 분야는 풍선공예(8일~11월 27일) 5명, 가죽공예(23일~11월 25일) 5명 등 총 10명을 모집한다. 각 분야 참여자가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도록 할 예정이며 공예가 2인이 강사진으로 참여한다. 재료비 등은 무상제공되며 제작된 작품은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자들은 장애인 진화형 키트 개발에도 참여한다. 전화접수(062-670-7465)도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조연으로 더 빛난 기주봉 연기세계 영화로 만난다

광주독립영화관 9~11일 특별전

주연보다 빛나는 조연으로 존재감을 뽐내는 연극배우 겸 영화배우 기주봉(사진)이 올해로 데뷔 4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해 기주봉의 다양한 작품과 연기세계를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린다.

'기주봉 배우전'이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열린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기주봉이 출연했던 '69세', '정말 먼 곳', '심판', '낙과' 등 장편 4편과 단편 4편 총 8편을 소개한다.

9일 오후 5시30분에 상영하는 작품은 기주봉의 첫 장편 주연작이며 제5회 들꽃영화상 남우주연상을 안긴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 (2017)다. 어느 날 예고 없이 암 선고를 받게 된

미스터 모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영화를 만드는 내용이다.

10일 오후 3시에는 도시를 떠나 강원도 화천의 양떼 목장에서 평안한 시간을 보내던 진우에게 연인 현민이 찾아오며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린 '정말 먼 곳'을 상영하며 같은 날 오후 5시30분에는 성폭행당한 노인의 아픔을 그린 '69세'로 관객과 만난다.

11일 오후 3시에는 제71회 로카르노영화제에서 기주봉에게 남우주연상을 안긴 '강변호텔'을 선보이며 영화가 끝난 후에는 기주봉 배우와의 대화 시간이 마련된다.

이날 오후 6시에는 단편 '심판', '개를 다니고 다니는 여자', '꽃피는 철길', '낙과'를 잇따라 상영하는 단편섹션이 진행된다. 관람료 일반 5000원. 문의 062-222-1895.

/전문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네이버문화재단, 10월 4일까지 '교양있게 챌린지'

네이버문화재단은 '열린연단: 문화의 안과 밖'이 10월 4일까지 인문학 강연 심화 학습에 도전하는 '교양있게 챌린지'를 연다고 7일 밝혔다.

네이버 열린연단은 국내 석학들이 연사로 나선 강연 프로젝트이자 인문학 오리지널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네이버문화재단은 지적 성장을 위해 교양을 채우는 지식 습관을 꾸준히 기르자는 취지로 이번 챌린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열린연단 홈페이지에서 석학들과 함께한 1천여 편의 강연과 토론 영상, 360여 편의 석학 에세이, 그리고 모든 강연 원고, 오디오북 등 다양한 인문학 콘텐츠를 무료로 볼 수 있다.

네이버는 1000여편의 강연 중 3편을 시청하고 개인 SNS에 리뷰를 올린 이용자 중 20명을 추천해 네이버페이 3만원을 주는 이벤트를 마련한다.

/연합뉴스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의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자연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